

96. 6. 12

## “성추행교장 퇴진” 교사들 서명

### 교육청도 진상조사 나서

속보=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동교육청은 11일 서울 신양중 황아무개 교장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(〈한겨레신문〉 6월11일치) 진상조사에 나

섰다. 시교육청 관계자는 “관할 교육청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중처벌하겠다”고 말했다.

이날 신양중에 근무하는 정교사 60명 가운데 36명이 교장 퇴진을 요구하는 문서에 서명하고 앞으로 추가 서명운동을 벌이겠다

고 밝혔다.

한편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,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, 전교조 서울지부 등 8개 단체는 ‘신양중학교 성추행 교장 퇴진 및 학생인권수호 공동대책위원회’를 구성기로 결의하고, 이날부터 교장 비리, 성폭력 및 학생인권침해사례 고발 전화를 개설했다. 966-6364.

김영희 기자